

NEWS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김영록 지사, 인구감소 해법 마을 현장서 모색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4면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외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1면 ‘경제성장전략’서 계속

특지단 출범은 두 지역이 공동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 정부가 한 관계자는 “서남권이 AI와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농생명 산업을 융합해 신성장 모델을 만들어내고, 광주·전남 특지단이 초광역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번 전략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서남권이 만들어낼 성과가 곧 새정부 균형발전 전략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역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선 햇빛·바람연급 등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모델을 도입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진도 신기마을 찾아 주민 좌담회 열어 의견 청취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2일 마을 소득사업, 생활인구 늘리기 등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진도 신기마을을 방문, 주민들과 좌담회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진도 신기마을은 지난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돼 신기활력센터 건립, 어항시설 정비 등 마을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소득사업으로 울돌묵에서 펄펄 뛰는 송어를 활용한 ‘프리미엄 신기하다 어묵’을 개발했다.

2023년 ‘도시민 전남어민되다’라는 2주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남 섬 생활의 매력을 알리고, 생활인구 늘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금 체험형 답례품 제공 사업에 신기마을이 시범마을로 선정돼 체험프

로그램 고도화 등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컨설팅 완료 후 전남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신기활력센터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5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신기마을 어촌계장과 마을 주민들은 ‘프리미엄 신기하다 어묵 제조설비 지원’과 ‘무조항 퇴직도 준설’ 두 가지 사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도에서 인증사업으로 추진하고, 설비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생활 민원부터 마을 활력 증진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록 지사는 “신기마을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열린 마을로, 좌담회를 통해 울돌묵에서 펄펄뛰는 송어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진도 신기마을을 방문,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활용한 어묵 등 주민 소득사업 개발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 모든 마을이 신기마을처럼 외지인을 적극 환영하고 받아들이다면, 전남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전남도는

지속적인 생활 인구 유입과 주민 생활 개선을 통해 ‘지금은 전남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철 기자 hoibul@gwangnam.co.kr

광주시, 세계양궁대회 인권친화 국제대회로 연다

인권영향평가단·장애인선수 합동 인권차별요소 현장 점검

오는 9월 5일 개막하는 ‘광주 세계(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가 인권친화적 국제대회로 치러진다.

광주시는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인권친화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인권영향평가단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 활동에 나섰다.

광주시는 인권영향평가단과 함께 최근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펼쳐지는 광주국제양궁장과 광주월드컵경기장 등 경기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평가단이 제시한 개선사항들을 대회조직위원회에 전달해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영향평가단은 광주시 인권평화과,

삼일유브즈를 비롯해 장애인, 다문화, 편의시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활동가들로 구성됐다.

이번 점검은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계승한 인권도시 광주와 정체성을 살려 모든 참가자와 관람객이 차별 없이 대회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점검에는 인권영향평가단과 함께 광주 장애인양궁협회 소속 선수들이 직접 참여해 자별 금지, 장애인 접근성, 긴급대응 체계, 환경 안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출입로, 주차장, 화장실, 도킹실 등 기존 시설을 꼼꼼히 살폈다.

점검 결과, 평가단은 중증장애인 선수

식음료 보조도구 제공, 모두의 화장실, 이슬람권 선수 기도실, 응급의료 통역서비스 마련 등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 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장애인 화장실 표지판과 비상벨 설치, 주차장 표식의 한국산업표준(KS) 기준 적합성 확인 등 세부적인 개선 필요 사항도 지적됐다.

광주시는 평가단의 의견을 즉시 반영해 대회조직위원회와 대회지원단에 개선사항을 전달, 대회 전까지 모든 인권친화적 시설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대회 현장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평가단과 재점검을 실시하고, 대회 기간 중에는 인권전문가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해 실시간으로 인권차별 요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 농수산물 수출, 지난해보다 7.3% ↑

7월까지 5억190만달러
미국 13.1% 최고 증기를

전남도는 고금리·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말까지 농수산물품 수출액이 5억19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늘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이 9174만달러로 13.1%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은 8068만달러(10.9% 증가), 일본은 1억2989만달러(6.6% 증

가)로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수출이 증가한 것은 현지에서의 한류 확산과 이에 따른 한국 식품 선호도 상승, 김 등 수산물 수요 확대 등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김을 포함한 수산물이 3억3177만달러로 전체의 66.1%를 차지하며 수출을 주도했다. 이어 농산가공품은 8126만달러(16.2%), 분유 등 축임산물 4802만달러(9.6%), 배 등 신선농산물 4084만달러(8.1%)를 기록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SRF시설 악취개선 민관합동TF’ 출범
시·구·주민·전문가 15명…정보공유·모니터링 활동

광주시는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제조시설) 악취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팀(TF)’을 지난 21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관합동TF는 효천1·2지구 주민대표, 광주시의회 최지현·임미란 의원, 환경전문가, 광주시·남구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또 자문위원으로 김병내 남구청장과 강성근 정진옥국회의원실 사무국장, 조재욱

진보당 광주시당 남구공동위원장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14일 강기정 시장과 김병내 남구청장은 주민간담회에서 SRF제조시설 인근 악취 개선을 위해 악취 문제 발생에 따른 법적인 행정절차 신속 진행, 광주시·자치구·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전담팀(TF) 구성을 통한 SRF시설 악취 해결방안 논의 등을 약속했으며, 민관합동TF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곡성 모듈러 주택단지 / 휴인 설계·시공

대한민국 탄소중립에 발장 서겠습니다

휴인주식회사
HUIN Co., Ltd

문의 및 상담 Tel. 061-271-5777 / 062-945-0036~7

공학목재(구조용 집성목재) 제조·공급하는 지역기업 입니다.

국내 KS 인증서
(구조용집성목재)

국내 신기술 인증서
(합판교 CLT)

내화구조 인증서
(기둥, 벽체, 바닥)

- 목조건축 상담 및 설계지원
- 건축구조재(CLT) 신기술 인증 보유 기업
- 내화구조 1시간, 2시간 인증
- 구조용 집성목재 생산·시공(KS인증 보유)

집성목재 생산 및 납품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골조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설계지원 및 시공

www.huin.kr